

2015 / 1

vol.43

www.hwashin.co.kr

화신가족이 만들어가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

하늘과 바람과 별과



흰 눈이 소복소복!

눈이 귀한 영천에 풍성한 흰 눈이 내립니다.

하얀 깃털 이불을 덮은 듯 포근한 모습이

올 한해는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자,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하늘타리 표지사진의 주제는 "Fighting 화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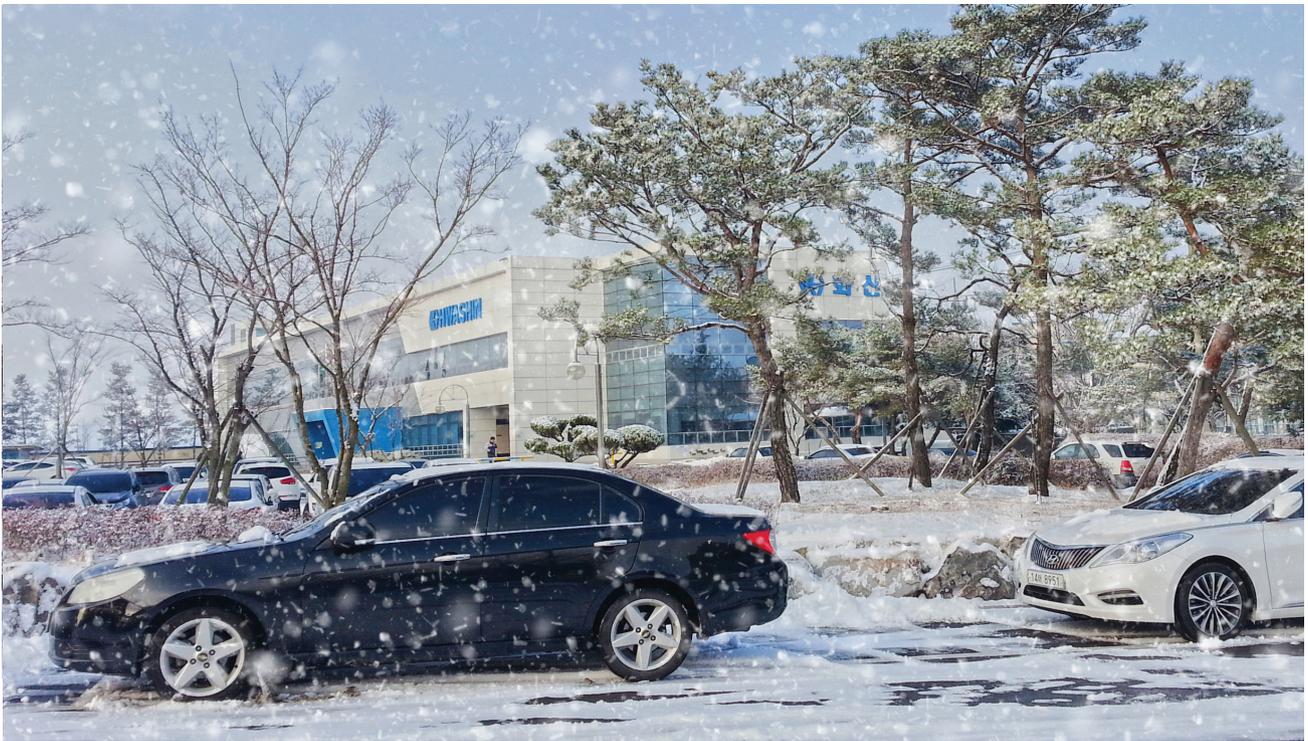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를 돌아보고 서로를 응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보의 주인공은 "화신"입니다.

소복소복 내리는 흰 눈처럼 2015년의 날들이

행복과 건강, 도전과 성취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사진 / 화신 총무팀 권영우 차장



Contents

WINTER 2015

기획테마 1	2015년 신년사	04
기획테마 2	2015년 경영방침	08
화신포커스1	2014 화신 핫이슈	12
화신포커스2	화신사보가 가야할 길	14
INSIDE 화신	화신뉴스	16
화신 영리더	영어페스티벌/ 1년차 사원 간담회	21
프로의 다이어리	하얀 설원 위를 누벼라!	24
사회공헌 활동	동행의 기쁨	25
오피스절친	똥똥 뭉친 18기 동기에	26
행복한 사진관	화신인들의 행복스토리	28
테마스토리	나의 미래 계획표	30
힐링타임	전주여행/산속의 야영	32
화신 1박2일	제품연구팀 연극관람기/생산관리팀 송년회	34
트렌드 돋보기	겨울왕국으로 떠나는 눈꽃산행	36
	안전과 멋! 둘 다 잡는 겨울산행 스타일링	38
	요모조모 쓸모 있는 메모! 커피편	40

사 보 기 자 단

화 신 총 무 팀	최준희	susec5@hwasin.co.kr
화 신 총 무 팀	안정희	jeong-hee.an@hwasin.co.kr
화 신 해외기획팀	박상연	sypark@hwasin.co.kr
화 신 정공업무팀	조아영	ay930430@hwasin.co.kr
새화신 업 무 팀	송영규	ygsong29@hwasin.co.kr



2015 신년호

발행일 2015년 1월 31일 / 통권 제43호

발행인 정호 | 편집인 현재호 | 발행처 사보편집부

발행처 화신 사보편집부 www.hwasin.co.kr 경북 영천시 언하공단 1길 14 우편번호 770-280 T. 054.330-5000 F. 054.331-3252

기획·취재 사보편집부 T. 054.330-5132 susec5@hwasin.co.kr

편집·출판 비엔비커뮤니케이션즈·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6길 37 B&B빌딩 T. 053.751-0777

「하늘타리」는 한울타리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함께 나누고픈 화신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한울타리에 담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15년도 시무식

(주)화신 2015.1.5



HWAHIN



TOP & TOPIC 기획테마 1

2015년 신년사 2015년 한 해가 우리 화신 그룹의 40년 역사에 또 하나의 성공스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 화신 가족 여러분,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화신을 위해 힘써 주시는 국내외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국제적인 경기 불황과 더불어 내수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우리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꾸준히 올라가던 매출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그 어려움은 이제 눈에 보이고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합심해서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신 가족 여러분!

올해는 우리 화신 그룹이 설립 4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지난 1975년 화신 제작소로 시작하여 지금의 화신 그룹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여 지금에 이르는 많은 성공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현재의 화신 그룹이 존재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선배 화신 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과 그 어려움의 극복을 통한 성공의 기회가 공존하는 환경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세계경제는 유럽의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 중국의 성장세 둔화, 신흥국의 저속성장 등 여러 악재 속에 좋지 않은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홀로 성장세를 기록하며 다시 세계 경제질서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침체된 국제경기 회복에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며 경제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우리 화신 그룹이 단합된 힘으로 과거 여러 차례 경영 환경상의 위기를 극복해 왔던 것처럼 지금의 위기도 우리 전 조직원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5년 한 해가 우리 화신 그룹의 40년 역사에 또 하나의 성공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화신 그룹의 내년 경영 방향에 관련한 네 가지 당부사항을 전 조직원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가 경쟁력 혁신'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자동차 산업은 세계 최대규모의 산업 중 하나입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여러 시장이 개방되고 그에 따라 자동차 산업도 신규 수요와 성장 기회가 많이 창출되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회사 수익의 기본이 되는 원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매년 원가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지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익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온 원가에 대한 접근 방식이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절약한다는 의미를 넘어 원가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최적의 목표원가와 표준원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고 제조 과정 내 발생하는 모든 비용요소를 전사적 관점에서 기획, 관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원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원가구조 혁신을 이루어 내는 것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혁신 그룹만의 새로운 경쟁력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고 미래에 더 큰 조직으로 발돋움할 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일류 품질 Brand 구축'입니다.

품질의 중요성은 몇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의 요구 수준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은 글로벌 품질 5스타의 개념을 도입해 그룹 내 국내외 전 계열사의 품질 수준으로 우리의 품질 레벨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룹 내 국내외 각 계열사 중 일부라도

고객의 요구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면 많은 경영상의 애로를 겪게 될 것입니다. 우수한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품질부서 및 유관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품질 전담인력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여 품질 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협력업체 및 해외법인의 생산, 품질 평가시스템을 재정비하여 품질불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인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적절한 지원을 통해 품질수준이 모두 함께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에는 새혁신이 품질 5스타를 달성하는 성과를 내었고 고객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상당부분 개선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더 품질 향상에 매진해서 혁신 그룹만의 고유한 품질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내야 합니다. 보다 진일보된 혁신 그룹만의 품질 브랜드가 구축되었을 때 비로소 글로벌 일류 품질 브랜드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치창출형 업무 구조 확립'입니다.

우리 혁신 그룹은 2015년이 되면서 4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조직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은 분명 자랑스러워 할 일이지만 어쩌면 40년 동안의 낡은 관습에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업무 구조가 어떠한지 점검해보고 가치창출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프라 등의 물리적인 개선이고 다른 하나는 구성원들의 태도, 사고방식 등의 마인드 개선입니다. 2014년 제시되었던 '변화와 혁신으로 위기 극복'이라는 경영방침은 생존경쟁을 위한 개선의 시





작점이 되었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고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중심의 생산성 확보와 운영효율 유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혁신이 위기 극복의 필요조건이라면 심리적 부분인 소프트웨어 혁신은 그 충분조건입니다. 종종 물리적인 변화를 혁신의 성과로 인식하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태인지 재점검해보고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와 일하는 방식, 구성원 인식 변화 등 마인드 개선을 통해 높은 수준의 가치창출형 업무구조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지향형 사업 구조 확보'입니다.

성장은 뱀이 허물을 벗고 게가 껍질을 탈피하는 것과 같이 기존에 있는 틀을 깨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화신 그룹은 고속성장을 해오다 그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으며 원가절감 압박과 치열한 수주경쟁, 안전 및 환경에 관한 규제 등 다양한 변수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장지향적인 사업 구조는 이런 위험요소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에 달려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와 유연한 조직 문화, 이것을 성과창출로 이어나가는 노력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핵심입니다.

여러 환경 변수 속에서도 우리 화신 그룹은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고객 다변화 등 다양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특정 팀이나 조직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과제 달성의 당위성을 공감하고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모색하고 이것을 성과 창출로 이어나갈 수 있는 성장 지향형 사업 구조를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높고 큰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화신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실패,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낸 성공의 경험을 안고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화신 그룹이 남긴 40년이라는 역사의 발자취는 정말 엄청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미래는 누구도 예측 할 수 없습니다. 지난 40년과는 비교하기 힘든 어려움이 앞으로 수없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성공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전 임직원이 화합하여 노력한다면 어떠한 걸림돌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디딤돌로 바꾸어 더 높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괴테는 '목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장애물은 더욱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어려움들이 그저 우리 성공의 방해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원대한 목표에 가까워져 있다는 증거라고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다가올 또 다른 40년의 화신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다시 한번 오늘의 화신이 있기까지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며 변함없이 맡은바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온 임직원 여러분과 동반자로 함께 해온 협력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포상을 받은 수상자 모두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한 해 우리 화신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1월 5일
대표이사 사장 정 서 진



해외법인 신년사 북경화신

청양의 해, 일마다 잘되는 공정적인 한해 되길!

국내·외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올미년 양띠 해가 밝았습니다.
“양”중에서도 푸른 색의 “청양”(靑羊)의 해라고 합니다.

청을 뜻하는 푸른색은 진취적이고 매사에 빠른 속도로 임하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양처럼 원만하면서도 하는 일 마다 잘되는 긍정적인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북경화신 발전을 위하여 업무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술지원자 및 화신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도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목표로 세웠던 경영성과 달성, “품질 5 STAR+”를 유지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로 평가 할 수 있겠으며, 이는 화신그룹 전 임직원이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올해는 중국 자동차 시장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GM은 '15년까지 3개 공장(선양/우한/충칭) 증/신설, 폭스바겐도 기존 공장의 증설 및 칭다오/텐진에 신공장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공급 확대는 가격경쟁을 유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품질 및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서지 않으면 중국시장에서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가경쟁력 혁신과 품질확보 등의 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당면한 어떤 어려움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 한해는 북경 현대의 4공장, 5공장 설립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북경 화신도 신규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는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북경 화신이 있기까지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며 변함없이 맡은바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한 해 화신그룹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박영만 전무
중국화신 법인장



해외법인 신년사 미국화신

미래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도전의 한해 될 것!

2015년,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해 화신가족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화신의 안정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사장님, 부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014년 한해는 미국법인에 있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LFA/UMA 신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일일 3정5행 활동을 정착하여 안전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고객품질문제, 자재조달 이슈 및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도 큰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미국법인은 지난 해의 어려움을 흘려 보내지 않고 미래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도전기회로 삼아 합리적 의사결정과 창의와 협업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미국법인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근본 체질을 바꾸어나가겠습니다. 첫째, 작년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JFA/ADA 신차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장관리자 업무능력 향상교육 및 고유기술기능 육성을 통해 현지화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비상경영체제를 통해 인원 절감 및 경비 절감 목표를 달성하여 수익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품질 데이터의 현실화, 정확도 확보, 품질개선 및 설비 가동율 향상을 통해 도장 특화 공장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작업장과 종업원에 대한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공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베풀어주신 성원과 후의에 감사드리며,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의호 전무
미국화신 법인장



해외법인 신년사 브라질화신

이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꿈을 꾸어야 할 때

올미년 새해 화신 가족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가장 먼 임지인 이곳 브라질에 오니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전임 법인장이 이루어 놓은 품질과 생산에 대한 좋은 결과를 그대로 유지 및 개선하여 1등 해외법인으로 계속하여 자리매김을 해보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해봅니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부터 불어온 브라질 해알화의 약세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4년째 단일 차종의 양산으로 인해 매출 성장의 한계와 고객의 기초품질 강화를 위해 분기별 이루어지는 합동감사 등 더더욱 어려운 한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내실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구리가 더 멀리 뛰기 위해 잠시 움추리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그 동안의 성공 뒤에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준비하는 것들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는 원가 경쟁력의 혁신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브라질 법인은 창립 이래 단 한번도 흑자를 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창출입니다. 이윤이 나지 않는 기업은 기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을 위해 브라질 법인은 피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낭비의 요소가 없는지 돌아보고 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개선하여 기업의 가치 창출에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며 고객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품질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 한번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마음도 허락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OEM 수주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브라질 법인이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고객다변화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이 브라질은 우리에게 기회와 땅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난해 작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올해는 이것을 뛰어넘어 보다 넓은 시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 한해 브라질 법인은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꿈꾸지 않는 청춘은 청춘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라질 법인은 이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꿈을 꾸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실현하기 위해 더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브라질 화신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잠든 시간에도 땀 흘리며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한번 더 올미년 새해 화신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넘치는 한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섭 이사
브라질화신 법인장



해외법인 신년사 인도화신

잔잔한 파도위를 순항하며 질주하는 그 날까지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인도법인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 주재원과 현지인이 합심하여 IB 신차 라인을 성공적으로 launching 시키고 비상경영 체제하에 survival plan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익성 개선, 고객다변화, 품질실적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한해였습니다. 2015년 인도경제는 작년 5월 나렌드라 모디정권 출범 후 각종 규제완화와 인프라 확충, 외국인 투자유치등 적극적인 시장지향적 정책인 "모디 노믹스"가 성과를 거두고 있어 올해는 6.3% 내외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으며, HMI 역시 작년 8월 양산시작한 IB차종의 판매호조에 힘을 입어 올해는 작년대비 약 5.8%상향 조정한 635,000대의 생산계획을 하고 있어 전반적인 환경은 호전되고 있는듯 합니다. 그러나 인도법인의 올해 경영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향해가 예상됩니다.

- 첫째, 수익성 측면에서 환율문제와 높은 재료비 부담.
- 둘째, 품질 측면에서 고객사의 요구 수준대응 및 품질 5 STAR 목표달성.
- 셋째, 노사 측면에서 올해는 3년간의 임단협 실시.
- 넷째, 3협력사(동산,동성사,조웰) 의 어려운 경영환경 극복 협력관계유지, 등등

이러한 과제를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해 작년까지 추진해오던 비상 경영체제를 상시적인 체제로 전환하고 확실한 체질개선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도특성 및 공장체계에 부합되는 새로운 MODEL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고 인도법인은 올해 Proactive Business Model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Proactive Business Model 에는 4개 분과를 운영하며 첫째, Profit activity 는 한계 극복을 위한 새로운 생존 모델을 수립하고 수익성 확보를 위한 현지 특화 모델 창출.

둘째, Proactive Quality System은 고객 품질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품질시스템 개발. 품질목표달성.

셋째, Proactive Training System은 인력 활용방안을 확보하고 직급에 맞는 직무개발을 통한 적재적소의 인력배치 및 인력관리를 통한 노무문제 완화.

넷째, Proactive Cooperation Plan은 변화에 따른 생존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협력사 상생모델 정립.

이와같은 활동을 통해 올해의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고 또한 8월에 양산 예정인 GS차종의 LINE 역시 완벽한 사전준비로 성공적인 Launching을 이루도록 할것 입니다.

거친 파도와 폭풍을 견디고 극복해 나가다 보면 분명 인도 법인도 잔잔한 파도 위를 순항하며 질주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여기 주재원과 현지인들은 믿고 합심하며 전력 할 것 입니다. 다시 한번 올미년 새해는 여러분과 가족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박윤규 상무
인도화신 법인장

화신그룹의 2015년 4가지 경영방침



전략기획실장 김태용 이사

금년 시무식에서 사장님께서 2015년 한 해 동안 회사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경영 방침 4가지를 선포하였습니다.

1. 원가 경쟁력 혁신
2. 글로벌 일류 품질 브랜드 구축
3. 가치 창출형 업무 구조 확립
4. 성장 지향형 업무 구조 확보

올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 우리 화신인들이 달성해야 할 경영방침에 대한 의미를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원가 경쟁력 혁신 “원가 경쟁력은 생존 경쟁력이다”

관점에 따라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기업이 존재하는 그리고 존재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부가가치 창출이다'라는 명제에 반론을 제기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한 해 국제적인 경기 불황과 더불어 내수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우리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었으며, 우리 회사 역시 최근 꾸준히 올라가던 매출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그 어려움은 이제 눈에 보이고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회사의 부가가치 창출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가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원가 경쟁력 없이는 매출 성장을 위한 신규 물량 수주 및 신규 고객 확보도, 구성원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이윤 창출도,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도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작년에도 외형 성장의 노력과 아울러 매년 해오던 것과 마찬가지로 원가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원가 절감 활동의 성과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해온 원가에 대한 접근 방식이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단순히 비용들을 절감한다는 의미를 넘어 원가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금년부터, 우리 회사는 원가 구조 혁신을 위하여, 목표 원가 개념을 도

입하고, 사내 모든 원가 요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원가 요소간의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여, 중장기적인 원가 혁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주요 4대 비용 요소인 재료비용, 공정비용, 투자비용, 간접관리비용에 대한 최적화/최저화를 달성해 나갈 것이며, 이를 우리의 근원적인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화신 그룹 구성원들 모두도 이러한 취지에 동감하고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2 글로벌 일류 품질 브랜드 구축 “소비재 기업은 마케팅으로 고객을 선도하고, 산업재 기업은 품질로 고객을 선도한다”

모든 기업들은 기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고객들의 Needs(요구, 바람)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기업들은 단순한 고객 Needs 충족을 넘어 고객 만족, 고객 선도를 달성해 내기 위한 많은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생활 소비재 기업 P&G (Procter & Gamble)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이보리 비누, 다우니 세제, 비달 샴푸 등을 만드는 회사이며, 연 매출액이 100조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소비재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연구 개발 비용으로 연 2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연구 개발 비용의 5배에 이르는 10조원 규모의 비용을 자사 제품/브랜드의 광고 및 홍보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제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의 장점을 고객에게 어필해서, 우리의 고객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전략적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 구성원 모두 품질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품질이 왜 중요할까요?

고객이 정한 기준에 맞는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기준일 수도 있고, 품질 산포에 따라 발생하는 실패 비용 저감을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품질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제품의 가치를 고객에게 설득할 수 있고, 고객이 파트너로 우리 회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고객과의 동반 성장 및 신규 고객의 지속적 발굴을 위해서는 우리의 품질 수준을 하나의 브랜드화시키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화신을 선택하고, 화신의 제품을 선택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담보 받는다'라는 고객의 인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3 가치 창출형 업무 구조 확립 "혁신은 생산 현장에서만 진행되는 것? No!"

우리 회사는 다양한 혁신 활동의 전개를 통하여, 우리 사업장의 경쟁력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의 가치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활동의 대상이 우리의 생산 현장에 국한되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습니다.

업무 방식, 업무 태도, 업무 프로세스 등 우리의 Soft Infra에는 개선 및 혁신의 여지는 없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가치 창출(Value Creation)은 창조적 사고와 혁신적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선도 기업들은 '카이젠'을 넘어선 가치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창조적/혁신적 실험을 하고, 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구글의 경우, "20% Rule"이라는 규정을 통하여, 모든 구성원이 본인 업무 시간의 20%를 새로운 것에 대한 고민에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메일 서비스 'G메일', 실시간 맞춤형 검색 '구글나우' 등 구글의 대표 상품들이 탄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3R 캠페인을 통하여, 업무의 혁신적 개선을 전사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유니클로, SK텔레콤 등의 회사도 업무의 비효율성 저감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 "3R" Campaign

Remove

업무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또는 부가 가치 없는 습관적 업무 제거

Reduce

업무의 양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단순 반복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

Rearrange

"꼭 이렇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의 변화를 통해 업무방법의 변화를 모색

유니클로 "4無 Office" Campaign



SKT, "2949시계" Campaign

- 정보 공유회의는 30분, 의사 결정 회의는 50분을 넘지 않도록 함
- 회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 회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전에 회의 자료를 배포
- 회의장에 3분 전 도착하고 회의 정시 시작 생활화

우리 구성원들도 이제까지의 하드웨어 중심의 생산성 확보와 운영 효율 유지의 틀을 넘어서서,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와 일하는 방식, 구성원 인식 변화 등 마인드 개선을 통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가치창출형 업무구조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4 성장 지향형 사업 구조 확보 "성장이 없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화신 그룹은 고속성장을 해오다 그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으며 원가절감 압박과 치열한 수주경쟁, 안전 및 환경에 관한 규제 등 다양한 변수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장지향적인 사업 구조의 확보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 환경 변수 속에서도 우리 화신 그룹은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고객 다변화 등 다양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독일 화학 기업 BASF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865년 설립된 150년의 장수 기업이며, 염료 생산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을 통하여, 지금은 100조원의 연간 매출 규모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화학 제품 기업입니다.

우리도 업계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회사의 성장을 위하여, 지금의 사업 구조보다 진일보된 사업 구조 (제품의 확장, 고객의 확장, 시장의 확장 등)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하듯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변화를 지속해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화신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모두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렵다는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로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부분을 꼭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4 화신 핫이슈

[핫이슈 1] 화신 제51회 무역의 날 3억불 수출탑 수상

무역의 날'은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념해 '수출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기념일 행사를 치러왔으며, 1987년부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역의 날'로 변경하여 기념해오고 있다. 2011년 12월 5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규모 1조달러를 달성하였고, 이를 기념하여 2012년부터는 '무역의 날'을 12월 5일로 변경하여 올해로 51돌을 맞이하게 되었다.

화신은 제51회 무역의 날을 맞이하여 2014년 7월에 수출의 탑 포상을 신청하여 12월 3억불 수출의탑을 수상하였다.

화신의 2014년 수출실적(13.7.1~14.6.30)은 직수출이 318,039천불, 로컬 등



기타수출이 47,490천불 총 365,529천불을 달성하였으며 2013년 대비 96% 수출성장을 이루었다.



창조경제로 도약하는 글로벌 무역강국!
2014 수출의 탑 수상 업체

750억불 탑	삼성전자(주)		
100억불 탑	SK하이닉스(주)	현대모비스(주)	
50억불 탑	엘지이노텍(주)		
40억불 탑	현대제철(주)		
10억불 탑	(주)현대캐피탈	한세실업(주)	
9억불 탑	(주)유라코퍼레이션		
8억불 탑	(주)경신		
6억불 탑	(주)세아제강	(주)엘지하우시스	세방천지(주) 애경유화(주)
5억불 탑	(주)드림웍	(주)시몬노	한국니트옵티칼(주)
4억불 탑	(주)토비스	(주)아이마켓코리아	고려해운주식회사 세메스(주)
3억불 탑	(주)온코퍼레이션 (주)코리아씨카트 (주)풍인무역	(주)화승알앤에이 (주)화신 글로벌이씨화학(주)	덴스코리아일렉트로닉스(주) 주식회사성우하이텍 현대위스코(주)
2억불 탑	(주)대우신소재 (주)대한솔루션 (주)레노비스시스템엔터테인먼트 (주)마봉 (주)비에이지	(주)서원인텍 (주)센트랄 (주)엘엔에프신소재 (주)엠씨텍스 (주)지엔에스트레이닝	(주)팬코 (주)호원 남양공업(주) 대동공업(주)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2014년 수출의탑 수상업체(2억불 이상업체)

TOP & TOPIC

화신 포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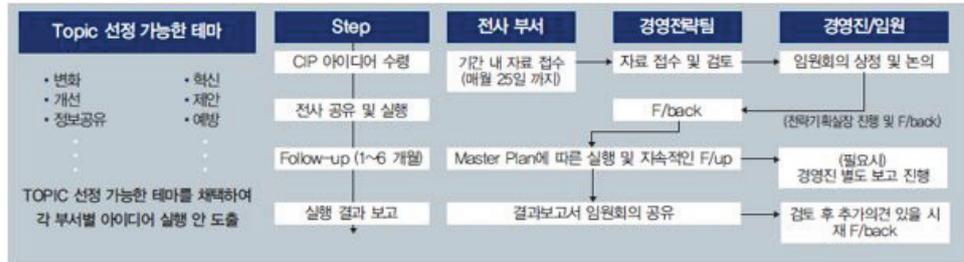
[핫이슈 2] C.I.P추진 (change & innovation program)

2014년 경영방침인 '변화와 혁신으로 위기극복'의 실행방안으로 3월부터 각 부문 아이디어 공유 실시

[C.I.P 제안 아이디어]

3월

- ▷ 지식 / 정보 공유 Infra 구축
- ▷ Cloud 환경을 이용한 사무 환경 개선
- ▷ Change Office, Change Mind, Creative Core Value
- ▷ 주차장 운영 효율화



4월

- ▷ 화신 그룹 글로벌 품질 세미나 실시
- ▷ 건물 옥상 녹지화 부가가치 창출
- ▷ 겨울철 연장 난방비 절감 방안
- ▷ SAP 상품 & 자산명칭 표준화
- ▷ 핵심 생산기술 전문인력 육성 협의 체 구성
- ▷ 신차 개발 대응 프로세스 재정립

5월

- ▷ ECO 투자비 업무대응 표준화
- ▷ 기업이미지 홍보 및 업무 기본사항 준수

6월

- ▷ 용접라인 차광막 활용
- ▷ 임직원 직거래 장터 신설
- ▷ 사내헬스장 개선
- ▷ 위탁자재 하도급 법 위반사항 개선
- ▷ 팀 별 업무 분장표 공유

7월

- ▷ 사내 메신저 개선
- ▷ 신규차종 개발 시 설계/품질 문제점 설명회
- ▷ 화신 대학생 서포터즈
- ▷ 안전사고 체험 학습
- ▷ CAD TOOL 표준화
- ▷ 물류차량 활용 화신그룹 이미지 광고
- ▷ 개인평가 제도 개선

[핫이슈 3] 연구소기업 이노빌 설립

이노빌(INNOBILE)이라는 상호는 화신 내부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었으며 Innovation(혁신)과 Automobile(자동차)의 합성표현으로써 '혁신적인 기술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자동차부품 전문 연구소기업'을 의미한다.

'이노빌'은 모터제어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분야 뿐만 아니라 일반산업군의 각종 제어기 제품 설계 및 제작이 가능하다. 또한 임베디드 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 차량용 통신, 마이크로프로세서 하드웨어 설계, GUI(Graphic User Interface)개발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연구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자동차, 가전, 에너지, 의료산업 분야에 있어서 개발경험이 풍부한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핫이슈 4] 현대.기아차 연구개발 총괄본부 양웅철 부회장 및 임원진 방문(4.11)

현대기아차 연구개발 총괄본부 양웅철 부회장 및 임원진 일행이 2014년 4월 11일 화신본사를 방문하였다. 이날 양웅철 부회장 및 임원진 일행은 회사 공장 투어 및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협력사인 유진정밀을 방문하여 공장투어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핫이슈 5] 연구소 경기분소 확장이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대릉 테크노타운으로 확장 이전한 경기분소는 총 296.34㎡(89.8평)로 기존 사무실 132㎡(40평)보다 2배 이상 넓어 연구소 직원들의 업무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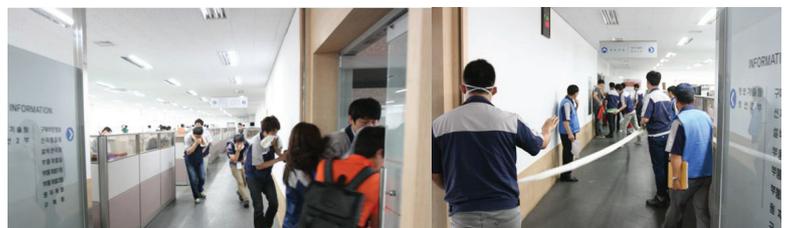
[핫이슈 6]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지원 성금기탁(6.3)

6월 3일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피해지원 성금으로 1억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였다



[핫이슈 7] 비상사태 종합훈련 실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정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비상사태 종합훈련을 7월 11일에 언하/봉동/연구소 사무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비상사태 종합훈련은 비상사태 발생 시 직원의 안전과 주요시설 및 중요 비품을 보호 및 대피하는 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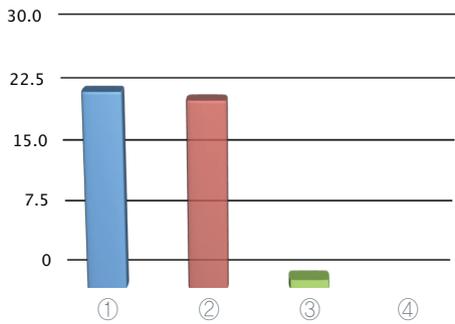
2015 사보가 가야할 길 화신인에게서 찾다!

화신가족이 만들어가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하늘타리'

계절이 바뀔 때 마다 찾아오는 '하늘타리' 속에는 화신의 역사, 발전모습, 화신가족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10여년 걸어진 '하늘타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간 및 발전 되기 위해서 주 구독자인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총 46명(남:38, 여:8)의 직급별 대상자들 상대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사내그룹웨어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설문문항은 총 5문항입니다.

1번문항 화신사보 "하늘타리"를 읽어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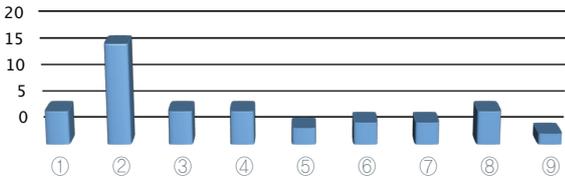


	1번문항
① 꼭 읽음	23
② 좋아하는 부분만	22
③ 대충	1
④ 안 읽음	0

대부분의 직원들이 화신사보를 열심히 읽고 있으며 직급별로는 과장, 주임, 대리 순으로 열정적인 독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① 꼭 읽음	1	6	5	7	4
② 좋아하는 부분만	9	4	5	3	1
③ 대충	1	0	0	0	0
④ 안 읽음	0	0	0	0	0

2번문항 화신사보 "하늘타리"에서 가장 즐겨보는 페이지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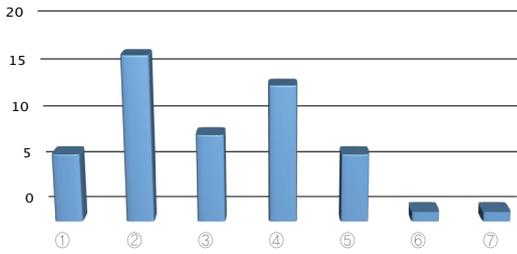


화신 사보에서 가장 인기있는 코너는 '화신포커스로' 나 타났으며, 기획테마와 명사특강, Inside 화신, 화신 1박2일 순으로 회사 동정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번문항
① 기획테마	6
② 화신포커스	18
③ 명사특강	6
④ inside 화신	6
⑤ 화신 영리더	3
⑥ 힐링타임	4
⑦ 이야기가 있는 현장	4
⑧ 화신 1박 2일	6
⑨ 트렌드 돋보기	2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① 기획테마	1	2	1	2	0
② 화신포커스	3	7	3	4	1
③ 명사특강	1	1	2	2	0
④ inside 화신	1	1	1	2	1
⑤ 화신 영리더	1	1	0	1	0
⑥ 힐링타임	1	1	1	1	0
⑦ 이야기가 있는 현장	0	1	0	2	1
⑧ 화신 1박 2일	2	0	1	1	2
⑨ 트렌드 돋보기	1	0	0	1	0

3번문항 화신사보 “하늘타리”가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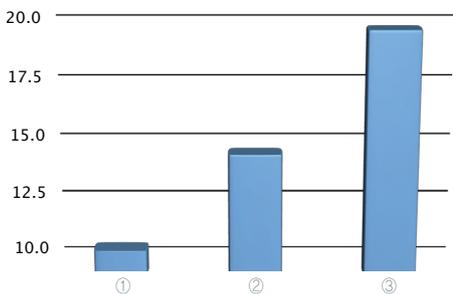


화신사보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내용으로는 여행지 추천이 가장 많았고 건강지식과 권장도서 추천 등이 있었습니다.

구분	3번문항
① 맛 집 추천	7
② 여행지 추천	17
③ 권장도서 추천	9
④ 건강 지식	14
⑤ 별자리, 운세, 혈액형 등	7
⑥ 틀린그림찾기 등 게임	1
⑦ 기타	1

구분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① 맛 집 추천	3	2	2	1	0
② 여행지 추천	2	4	4	6	1
③ 권장도서 추천	4	3	0	1	1
④ 건강 지식	3	2	5	1	3
⑤ 별자리,운세, 혈액형 등	3	2	0	0	0
⑥ 틀린그림찾기 등 게임	0	1	0	0	0
⑦ 기타	0	0	0	1	0

4번문항 화신사보 “하늘타리”에서 도움이 되었던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구분	4번문항
① 기획테마	11
② 프로의다이어리	15
③ 오피스 절친	20

화신사보에서 도움이 되었던 내용으로는 기획테마, 프로의 다이어리, 오피스 절친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구분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① 기획테마	2	1	3	2	3
② 프로의다이어리	4	6	3	2	0
③ 오피스 절친	5	3	3	6	2
④ 기타	1	0	4	0	0

5번문항 화신사보 “하늘타리”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1) 요새 이슈가 되는 ITEM 들 (하니버터칩, 아이돌가수) 다루었으면 한다.
- 2) 핵심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우수 팀을 발굴해서 부서 탐방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 3) 직원들이 사보를 통해 CEO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음
- 4) 아이스버킷챌린지 처럼 좋은 캠페인을 다음 사람 지정해가며 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
- 5) 지식채널 같이 특별기획으로 재능기부형식으로 글올리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6) 실제로말하기 힘든부분이나 속에 감춰왔던 얘기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고, 숨겨왔던 고충처리 문제도 해결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코너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이번 사보 설문지는 직급별 인원을 무작위로 뽑아 진행하였으며, 설문에 응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화신사보를 열심히 구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화신사보 '하늘타리'는 직원들의 관심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오니 직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신 뉴스 Hwashin NEWS



제3회 R&D 테크 컨퍼런스 개최 (11.20)

제3회 R&D 테크 컨퍼런스가 11월 20일 기술 연구소 대강당에서 실시하였다. 올해로 3회 째를 맞이하고 있는 R&D 테크 컨퍼런스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기술동향 및 신기술, 신공법 연구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중장기 연구개발의 방향 제시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부품전시회, 2014년 주요 연구개발 현황 및 외부연사 강연 순으로 실시되었다.



제 8회 따뜻한 사랑나누기 일일호프 실시 (12.4)

2007년부터 재경팀과 신입사원을 주축으로 시작한 사랑나누기 일일호프 행사가 12월 4일 영천시 SD웨딩컨벤션센터에서 실시 되었다. 올해로 8회 째를 맞이한 일일호프 행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많은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이 동참하였으며, 이날 수익금은 모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 되었다.



제 3회 영어 페스티벌 개최 (11.21)

총 11개 부문이 참가한 제3회 영어 페스티벌이 11월 21일 기술연구소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영어 페스티벌은 회사생활 에피소드를 주제로 실시되었으며, 주니어/시니어 계층으로 구성된 팀이 참가하였다. 최우수상은 화신정공, 우수상은 생산부문, 연구부문, 팀워크상은 직할부문, 구매부문 인기상은 영업개발부문, 경영지원부문이 수상하였다.



'3억불 수출의 탑' 수상 (12.11)

제51회 무역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화신이 경북에서는 최고인 3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 하였다. 이번 행사는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실시되었으며, 무역유공자 포상 822명, 수출탑 포상 148업체가 수상하였다. 무역의 날은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11년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계기로 11월 30일에서 12월 5일로 변경되었다.



김해용 노동조합 위원장 산업포장 수상 (12.22)

12월 22일 서울에서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14년 노사상생협력 지역노사민정협력 유공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직원들의 근로환경과 복지향상에 힘쓰고, 2004년 무분규 임단협 타결 이후 14년간 무분규 협상 사업장의 공로를 인정받아 김해용 노동조합 위원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하였다.

화신 뉴스 HWASHIN NEWS



제 9호 꽃편지 릴레이 행사 참여 (12.12)

영천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영천경찰서 주관으로 실시한 꽃편지 릴레이 행사에서 화북자율방범대에 승합 업무용 차량을 방범순찰 차량 용도로 기증하였다. 2014년 10월 영천시 상공회의소의 1호 행사로 시작한 꽃편지 릴레이 행사는 지역의 많은 기업 및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9호 까지 이어져 방범대 순찰차량, 야광지팡이, 간이 화장실 설치, 호신용 경보기, 경운기 경광등, 사랑의 연탄, 야광 다기능 조끼 등 많은 안전용품이 영천지역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봉사단체와 안전취약계층에 전달되었으며, 영천지역 안전문화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4년 협력업체 정기총회 실시 (12.19)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2014년 협력업체 정기총회를 12월 19일 기술연구소 대강당에서 실시하였다. 이날 총회는 동산공업 외 10개 업체 대표이사 및 협력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으며, IGM 세계경영연구원 신제구 교수의 특강을 시작으로 협력사 우수사례 발표 및 우수협력사 포상순으로 실시되었다.



영천시 자원봉사자 대회 참여 (12.3)

영천시 체육관에서 2014 영천시 자원봉사자 대회가 김영석 영천시장 및 관내 기관단체장, 자원봉사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세상을 바꾸는 자원봉사! 당신이 행복영천의 주인공'이라는 구호로 열린 이날 행사는 2014년 한 해를 돌아보며 그 동안 지역사회와 자원봉사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 해 온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우리 화신도 지역업체 최초로 매년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2014년 불우이웃 성금기탁

연말 어려운 지역사회의 불우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탁하였다. (주)화신 5,000만원, (주)화신정공 1,500만원, (주)새화신 1,000만원의 성금을 공동모금하였으며, 영천시 장학회에 1,000만원을 기탁하였다. 우리화신은 매년 불우한 지역사회 이웃을 위해 복지시설 및 단체에 물품 및 성금을 지속적으로 기탁해 오고 있다.



2015년 새해 떡국 이벤트 실시 (1.5)

2015년 올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임원진들이 모여 점심시간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떡국 및 과일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새화신 뉴스 HWASHIN NEWS



품질교육 실시

새화신은 품질문제 발생원인 중 가장 중요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 및 협력사의 체계적관리를 위해 현대모비스 사시모듈개발팀 이상훈 대리를 초대하여 조반장 및 관리직 임직원이 한곳에 모여 협력사 품질교육을 실시하였다



12월 정기 안전교육 실시

정기 안전 보건 교육은 소음성 난청이라는 주제로 실시 되었다. 난청의 제일 큰 원인으로 소음을 들수 있으며, 소음이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소음노출로 인한 건강보호와 저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기에 다시 한번 더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외부 강사(대한산업보건협회 김연이 간호사)로 부터 쉽고 재미있는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품질 5스타 인증 획득(12.23)

새화신이 현대자동차그룹의 품질 경영제도 우수 등급인 품질 5스타 인증을 획득하였다. 품질 5스타 인증은 현대·기아 협력 업체의 품질 경영체제 및 품질 실적을 종합적으로 반영, 등급화 하여 이를 당사의 개발, 협력업체 육성 등 구매정책에 반영하고, 부품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이다.

미국법인 HWASHIN NEWS



Family day (10.19)

10월 19일 Family day를 맞이하여 미국화신은 전 사원 및 가족들을 초청 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가족들은 화신의 공장내부를 견학하면서 화신에서 일하는 가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며, 공장동 옆에 마련된 파티 장소에 준비된 음식, 각종 놀이를 즐겼다.



추수감사절 파티 (11.25)

11월 25일 다가올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외부 요식업체를 통해 BBQ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2014년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새로운 2015년의 각오를 다졌다.



공장 증축 공사

2015년 양산되는 신차라인 설치를 위해 2공장 증축이 시작 되었다.

공사일정: 2014년 10월 20일~2015년 5월 4일
증축 면적 : 2,200평

브라질법인 & 북경법인 & 인도법인
HWASHIN NEWS



소방훈련 및 대피훈련 실시 (10.10)

소방훈련 및 대피훈련 실시를 통해 소화전, 호스, 소화기 사용법 등을 숙지하였다. 또한, 응급구조대로부터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다.



환경 경영 시스템 및 자동차 품질 경영시스템 획득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OHSAS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TS16949(자동차품질경영시스템)을 획득함으로써 현재 고객 및 미래의 잠재 고객에게 브라질 화신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품질담당자 Workshop (11.21~22)

전사적인 품질경영활동 및 업무진행 열정 및 적극성 향상과 업무 수행과정 중 존재하는 부서간/협력사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11월 21일~22일 북경 화이러우 집현산장에서 북경화신 팀장/반장/외주업체 품질담당자 총 30명이 참석하여 workshop을 진행하였다.



디왈리(Diwali) 축제 (10.22)

힌두교의 최대 종교행사로 부와 행운의 여신인 락쉬미를 기리는 축제다. '디왈리'는 산스크리트어로 '빛의 무리'라는 뜻으로, 인도 전역에서 사람들은 여신의 현현을 간구하고 행운을 기리는 의미로 집집마다 양초나 등불을 켜놓고 대대적인 불꽃놀이를 즐긴다. 이날 회사 내에서는 특별한 행사는 없었지만, 모든 직원들이 집에서 디왈리 축제를 즐겼다.



현지인 결혼식 참가 (11.28)

SAP팀 Aravin의 결혼식에 주재원 및 인턴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여 인도의 결혼식 행사를 경험하였다. 인도에서의 결혼식은 보통 이틀간에 이루어지는데, 전날 오전에 리셉션 행사가 있고, 다음날 저녁에 결혼식이 있다. 1부는 결혼식 행사, 2부는 저녁식사(뷔페) 순으로 진행되어 한국과는 비슷해서 분위기가 크게 낯설지만은 않았다.





| 화신 영어 페스티벌 |



화신정공 업무팀
조아영 사원

2014년 11월 21일을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다. 11개 부문이 참가한 제 3회 화신 영어 페스티벌에서 화신정공 부문이 최우수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영어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과거보다 더욱 성장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10월 14일 처음으로 kick-off 회의를 시작했던 날부터 영어 페스티벌 당일까지 38일 간의 준비기간이 파노라마처럼 눈 앞에 그려진다. 약 5주 동안 퇴근 후에 화신정공 경산공장에 가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팀원 네 명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고 영상에 맞춰서 연기 연습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최종 시나리오가 완성되기까지 고민하고 의논했던 시간, 연기력이 부족해서 영혼을 담은 연기연습을 반복하고, 대사 암기하려고 손으로 적고 말하고 녹음하고 발음교정에 신경쓰고...

영어페스티벌 준비일정

- 10월 14일 : 첫 미팅(kick off 회의)
- 10월 16일 : 2차 회의(시나리오 완성)
- 10월 21일 : 3차 회의(영문 대본 작성)
- 10월 23일 : 영문 대본 제작 완료 및 회식
- 10월 28일 : 대본 리딩 (담당 대본 필히 외워 올 것!)
- 10월 30일 : 1차 연습 (영상 자료와 함께 진행)
- »영상 자료는 10월 29일 까지 제작 완료
- 11월 4일 : 2차 연습
- 11월 6일 : 3차 연습
- 11월 10일 : 상무님 리허설, 4차 연습
- 11월 11일 : 5차 연습
- 11월 13일 : 6차 연습
- 11월 17~20일 : 7~10차연습
- 11월 21일(오전) : 최종연습 → 영어 페스티벌

회사생활 에피소드를 주제로 시나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 의논한 결과, 자동차부품 업계의 일류주자로 성장한 우리회사 '화신'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의 결과이기에 회사가 발전해 온 과정과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현재의 우리가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 가져야 할 자세를 생각해보자는 내용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환율강세와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 다수 기업의 수익성이 주춤하고 있는 시기에, 초심으로 돌아가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이번 위기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동기부여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컨셉은 뮤지컬 형식 or 스티브잡스 애플 상품소개 형식 or TED강연형식 등 몇 가지 컨셉이 나왔다.

그 중에서도 최현열 과장님의 아이디어인 존 F 케네디 연설형식이 참신하고 좋을 것 같았다. 존 F 케네디 연설 중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라는 문장을 인용해서 country를 company로 바꾸기로 했다. 연극 도입부에서는 사회자가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라고 시작하고, 연극 마지막에는 "Ask not what your compan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mpany 'HWASHIN.'" "Ask y.o.u.r.s.e.l.f.!" 라고 청중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기로 했다. [화신제작소 설립부터 현재 화신의 모습이 되기까지의 발전과정 → 현재모습의 우리는 회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현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

화신 30년사 책이 큰 도움이 되었다. 30년사를 읽으면서 이전 선배님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지금의 화신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고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회사가 걸어온 발자취를 생생하게 알 수 되었다. 대사만 주고 받는 단조로운 연극보다는 최대한 상황설정을 실감나게 하고 싶어서 다양한 소품을 준비했다. 화신제작소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화신제작소 시절 직원들이 입었던 '인전제일'이라고 적힌 작업복을 구하고, 해외법인 중 인도법인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목에 수건을 걸고 삼짍을 했다. 주방용품 냄비를 만들던 장면에서는 양은냄비를 뿔방치로 두드렸다.

약 2주 정도 준비한 후에 상무님과 팀장님들 앞에서 우리가 연습한 연극을 보여드렸는데, 상무님께서 주제와 컨셉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뿌듯했다. 그리고 각 장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시고 피드백 해주셨다. 상무님과 팀장님들한테 피드백을 받은 후, 오프닝과 클





ASHIN English Festival 2014. 11. 21(금) 장소 | 기술연구소 1층 강당

2014 Hwashin English Festival 일시 | 2014. 11. 21(금) 장소 | 기술연구소 1층 강당



로지를 좀 더 임팩트있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오프닝에는 남자 세 분이 옆으로 쓰러지고 내가 무대 앞으로 걸어나가서 YOURSELF를 외치는 것으로 결정했다. 무대 앞으로 걸어나가서 귀엽게 사랑의 총알 날리는 동작을 해서 분위기를 띄울까 아니면 그냥 손으로 전방을 가리키며 대사 말하고 진지한 분위기로 시작할까 고민 많이 했었다. 하하하

빵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연습에 몰두하기도 했고, 영어 페스티벌 일주일 전부터는 매일매일 전원이 모여 동작&영상&대사 연습을 했다. 지적 사항을 수정하고 피드백을 받고 연습하면서 연극의 모양새가 점점 완벽함에 가까워졌다. 자신감이 생겼고 동작을 크게 하고 표정연기와 실감나는 연기가 잘되기 시작했다. 첫 연습 때보다 더욱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다.

영어 페스티벌 당일에는 무대 위에서 조금도 긴장되지 않았다. 오히려 연습 때보다 더 무대를 즐겼다.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화신정공 직원 약 40명이 보는 앞에서 실전처럼 세 번이나 연습했고 38일 동안 팀원과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당일 무대에서는 편한 마음이라서 대사도 정확하게 기억나고 마지막 장면까지 준비한대로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두 손으로 동작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대사를 또렷이 전달하려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마이크가 연극 마무리 부분에서 소음이 발생해서 좀 아쉬웠다. 하지만 사회자가 당황하지 않고 워트있는 진행으로 잘 넘어가서 다행이었다. 수상자 발표를 기다리면서 3위권 안에는 꼭 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는

데, 기적적으로 최우수상을 타게 되었다. 우수상을 받고 싶었던 건 사실이지만, 최우수상은 예상 못했는데 운이 따라 준 것 같다. 영상감독님, 부감독님, 총감독님 모두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한명 한명의 노력이 우리팀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혹시나 수상소감을 말하게 될까봐 한 문장 준비했었다. "I would like to attribute this glory to all people involved in making of this absolutely fantastic play 'Ask yourself'. 화신정공 사랑합니다♥"

Ask yourself를 통해 답을 얻었다면, 우리 모두 십시일반의 자세로(Many hands make work lighter)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이번 위기 또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013년 12월 화신에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우리팀의 과장님께서 내 이력서에 영어 점수를 보고는 "아영아 우리회사에서 매년 열리는 영어 페스티벌이 있는데 거기에 참가해봐라" 라고 하셨었다. 그 말이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도전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3월에 있을 '화신인의 밤' 행사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해야겠다.(사실... 왕부담...)

P.S : 생생한 후기를 쓴다고 썼는데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영어 페스티벌 당일에 화신정공 부문 무대를 보지 못하신 사우분들은 화신인의 밤 행사 때 축하공연을 기대해주세요.

1년차 신입사원 돌잔치



화신정공 업무팀 조아영 사원

2014년 12월 10일, 화신 17기 신입사원 돌잔치가 열렸다. 사장님, 부사장님이 참석하신 자리였다. 2013년 12월 2일, 정장을 차려 입고 화신인으로 첫 출근하던 날이 엇그제 같은데 1년이 훌쩍 지났다. 지금까지를 추웠지만 가슴 설레는 시작이었다. 사장님께서 돌을 맞이한 신입사원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하셨다. 부사장님께서 는 드라마 미생에서 나온 대사를 인용하시며 격려를 해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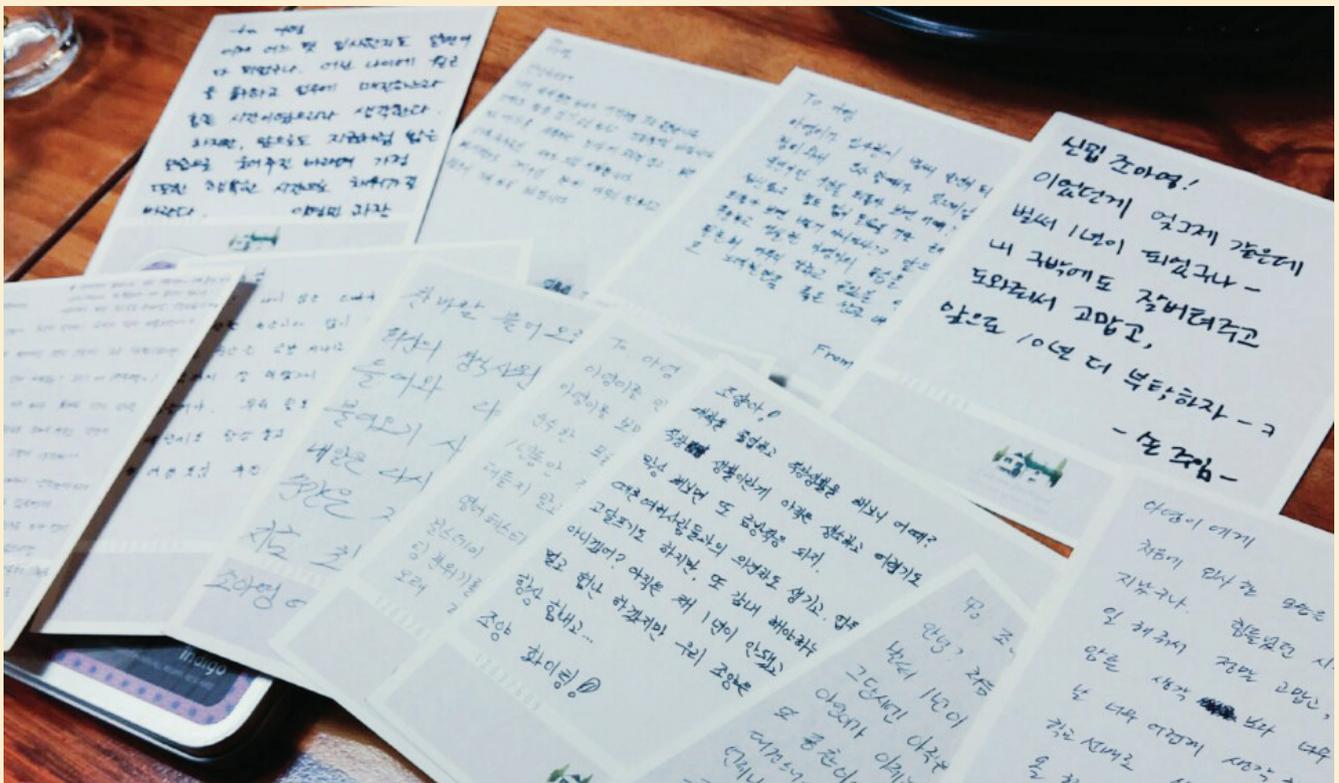
**“회사 안은 전쟁터지만 회사 밖은 지옥이다.
 미생에서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그리고 팀장님들께서 준비한 영상편지를 보며 감동 받아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1년 동안 수고한 화신 17기 신입사원 모두들 나 자신에게 박수를.



▲ 첫 돌을 맞이한 17기! 사장님과 부사장님의 기운을 받아 화이팅! 근데 돌잡이는 뭘로~?

▽ 따뜻함이 묻어나는 감동의 손편지들, 우리 17기도 언젠가는 이토록 따뜻한 선임이 되리라.



하얀 설원 위를 누벼라!

겨울 하면 스키죠!

탁구나 농구 같은 실내 스포츠도 즐겨 하는 편이지만,

왠지 겨울에 스키장을 안가면 뭔가 허전한 느낌?!

그래서 저는 겨울이 되면 친구들과 스키장 계획부터 세우는 편이에요.

화산정공 연구팀 하동수 대리

스키의 매력 리프트를 타고 찬바람을 맞으며 정상에 딱 섰을 때의 두근거림?! 그리고 눈 덮힌 슬로프를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으면 일상의 답답함이 뺨 뚫리는 기분이에요. 눈길을 미끄러지며 내려올 때 속도감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매력이라 할 수 있죠.

주로 가는 스키장은? 강원도의 'H스키장' 무엇보다 리프트 속도가 빠르고 곤돌라 형식으로 되어 있어 덜 춥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나에게 스키란 '보약'같은 존재! 겨울에 추워서 야외 활동 안하고 움츠려 들기 쉽지만, 스키장을 다녀오면 추위에 면역도 생기고 몸이 훨씬 가벼워 지는 기분이에요.

초보자에게 조언/당부하고 싶은 말 스키만큼 초보자에게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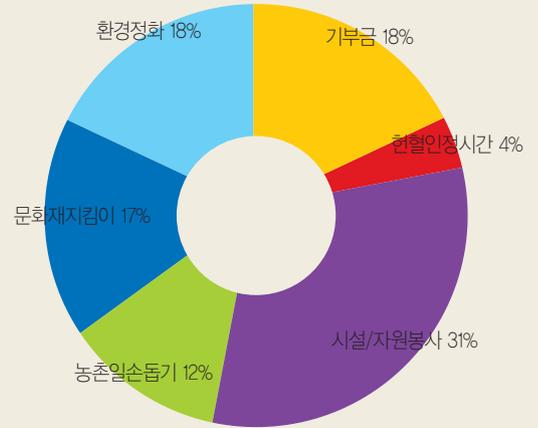
험한 스포츠도 없다고 봐요. 빠른 속도에 비해 안전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키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잘 타시는 분들도 안전에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스키를 타는 것을 배우기 전에 '잘 넘어지는 방법'을 먼저 배우는 것도 중요하구요. 그 다음으로 스키를 안 넘어지고 잘 타는 방법들을 주위에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전 스키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뒤로 넘어졌다고 하면 사람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관성에 비해 몸의 무게 중심이 뒤에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항상 지금 나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며 스키를 배우신다면 금방 늘 수 있을거예요.



2014년 사회공헌활동 결산 및 2015년 사회공헌 계획

2014년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이해관계자와 공유하는 공헌활동 시행의 슬로건을 걸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재능기부 등의 활동발향을 계획하고 실천하였다. 팀별 공헌활동은 5회이상, 팀원평균 20시간 이상을 목표로 각 팀별 활동을 시작하였다.



전사 공헌활동 실적		전사기준 33개 팀	관리직 인원 347 명	평균활동시간 22.2 hr		
기부금	헌혈 인정시간	시설/자원봉사	농촌일손돕기	문화재지킴이	환경정화	전체시간
1,379 만원	340 hr	2,383 hr	902 hr	1,289 hr	1,413 hr	7,705 hr

*기부금 : 일일호프 수익금과 사진전 판매금이 포함된 금액임.

그 결과 전사 7,705hr의 공헌활동 실적을 이루었으며 기부금 또한 1,379만원을 기록하였다.

구분	전략기획실	경영지원	영업개발	구매	연구	생산기술	품질	생산	직할부서	합계
소속 팀수	3	3	4	3	5	4	3	6	2	33
소속 인원	19	17	39	28	70	42	40	70	22	347
활동 시간	425 hr	317 hr	673 hr	429 hr	1,705 hr	729 hr	767 hr	1,449 hr	513 hr	7,005 hr
부문 평균	22.4 hr	18.6 hr	17.3 hr	15.3 hr	24.4 hr	17.3 hr	19.2 hr	20.8 hr	23.3 hr	20.2 hr



2014년 전체 부문의 평가 결과 연구부문이 24.4hr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구매부문이 15.3hr으로 최하위를 차지 하였다. 또한 전체 팀 중 생산2부가 평균 29hr으로 최고의 공헌활동 시간을 달성하였다.

2014년 화신의 사회공헌활동은 영천시와 연계한 파말마 활동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여 왔다. 그 결과 회사 이미지 제고 및 지역민·지역기관과의 유대관계 강화, 팀웍 향상 등 많은 대·내외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스타버리지’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돌아보는 한해

영천시 대표브랜드 행사활동 ‘나눔의 파발마 운동’ 발대식

2014년 01월 22일 (수) 13:49:05

박요순(영북자원봉사총회) 기자 yos04@hmail.net

영천시 (사)영천시자원봉사센터(소장 최완우)는 영천시 대표브랜드 봉사활동 ‘나눔의 파발마 운동’ 이 발대식을 21일 오후 6시 웨딩컨벤션에서 자원봉사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 대표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행복의 영천만들기 대장정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기업체, 향부리 단체의 첫 번째 주자인 한국전력공사, 주식회사 화신, 정권다리봉사단이 김영석 시장으로부터 ‘나눔의 파발마 기’를 전달받아 첫 주자로 나선다.

자원봉사자 자신이 ‘영천’입니다.

2013 영천시 자원봉사자대회...영천체육관

2013년 01월 22일 (수) 13:49:05

박요순(영북자원봉사총회) 기자 yos04@hmail.net

2013년 영천시 자원봉사자대회가 5일 영천체육관에서 김영석 영천시장을 비롯하여 관내 기관단체장 및 자원봉사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한 해 동안 자원봉사활동으로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아낌없이 노력한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 보범 수요자, 보범할인기명점 등을 발표해 표창으로 격려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영천시지부 어머니포스온이봉사회 회원진씨 등 16명이 우수자원봉사자로 영예의 자원봉사활동 개인표창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6번째 나눔 릴레이를 펼쳐 온 26개 향부리봉사단체, 12개 공공기관, 나눔을 실천하는 중견기업인 (주)화신 등 3개 분야의 ‘나눔파발마 운동’ 해단식을 겸해 진행됐다.

‘우리지역 문화유산에 참여와 나눔의 씨앗을!’

영천문화재단이봉사단,임고서원서 환경정화활동

2014년 04월 29일 (월) 10:21:39

안재용 기자 yos04@hmail.net

영천문화재단이봉사단(단장 김종식)에서는 26일 (주)화신지킴이, 정권다리봉사단, 스카우트가족봉사단, 영천고 학생봉사단 등 5개 단체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임고서원 일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20여년 넘게 해마다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기업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영천시 언하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화신이 화제의 기업체로서 영천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다.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동부동을 통해 영천시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달라면서 지정 기탁한 성금 액수만 2억6천만원이며, 올해도 4천5백만원을 희망나눔 성금으로 써달라며 동부동주민센터(동장 박종태)에 기탁했다.

착한 기업 화신 직원들의 이색적인 사진전시

2014년 07월 10일(목) 12:46 (영천시민신문) [영천] 박요순

(주)화신(회장 정효)의 사람들이 이색적인 사진전시회를 열고 있어 화제다. (주)화신의 총무팀(팀장 임경진) 직원들이 팀원이자 사진작가인 권영우(54) 차장이 찍은 사진을 사내 식당에 전시하고 전시된 사진을 판매해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쓸 예정이라고 한다. 사진이 전시되고 있는 볼품 (주)화신의 사내식당을 찾아가 보았다.



↑ 사진전시회를 관람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촬영한 권영우 차장(명함). ©영천시민신문



↑ 사진전시회 기획한 총무팀이 올해 5월 미나리마을로 출사 기념사진. ©영천시민신문

#착한기업 (주)화신
(주)화신은 총무팀의 사진전시를 통한 불우이웃 돕기 뿐만 아니라 사회 이곳저곳에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기업이다. 부서단위로 독거노인세미나 경로당 등을 방문해 청소할 해주기도 하고 해외 문화재지킴이 봉사단이 결성되어 있어 주기적으로 지역의 대표 문화재나 관광지를 찾아 환경정화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 6월 3일에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지원 성금 1억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단순히 ‘생산을 통한 이윤창출’이라는 가치를 넘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착한기업 (주)화신과 사람들의 행복한 향토를 격려해 칭찬하고 싶다.

2015년은 임직원과 함께하는 봉사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으며, 재능기부 확대, 농촌일손돕기, 기부문화 장려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뽕뽕뽕친 18기 동기애

총무팀 안정희 사원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위로받는 나의 절친들!

화신에 첫 발을 디딘 날. 저 같은 경우는 동기들처럼 인턴과정을 거쳐 정직원으로 전환이 된 게 아니라 수시 모집을 통해서 입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두달간 인턴 생활을 함께 해온 동기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우리 18기 동기들이 먼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건네주었기에 서로간의 어색함을 깰 수 있었고, 거리낌 없이 섞일 수 있었습니다. 27명의 동기들 중에서도 3주간의 교육 과정 중 주어진 조별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뽕뽕 뽕친던 2조 조원 7명, 고희주 사원(생산1부), 손연호 사원(생산1부), 이정환 사원(구매팀), 박진철 사원(화신정공 품질관리팀), 사공강 사원(설계1팀), 채승원 사원(시험해석팀)이 저(총무팀)의 오피스 절친들입니다.

지금은 각자 부서 배치를 받아 신입사원으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적응해 나가는 단계이다 보니 자주는 볼 수 없지만 한달에 한번씩 서로 시간을 조율해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만나도 어제와 같이 교육 받았던 것처럼 어색하지 않고 스스럼 없는 말장난을 주고 받으며, 서로 한달동안 있었던 일이라던가 고민거리 등을 얘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저의 오피스 절친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에서 분위기 메이커인 이정한 사원은 아직까지 업무에서 저에게 '폐급정희'라는 별명을 지어주며 항상 저를 놀리기 바쁘며, 기분좋은 장난을 치는, 주변인들에게 엔돌핀을 돌게끔 해주는 아주 재미있는 사원입니다. 반면, 과제를 하거나 업무적인 일을 할 때 보면 계획을 짜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꼼꼼한 성격을 지닌 2조의 에이스입니다.

생긴 것도 예쁘고 날씬하며 성격도 활발하고 춤까지 잘 추는 부산여자 고희주 사원은 처음

이미지는 새침떼기 같을 줄 알았으나, 반전매력이 있었습니다. 일곱명 조원들 중 유일하게 여자라서 더 쉽게 친해질 수도 있었으나, 대화를 하다보면 가끔 부산 사투리를 쓰며 정말 매력이 철철 흘러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희주와 알게 된지 5개월 정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대학생활을 함께한 친구처럼 편하고 쉽게 연락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사공강 사원은 '화신 제라블' 뮤지컬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노래도 잘 부르고 연기를 엄청 잘하는 사원이자, 남의 말을 항상 경청해주며 배려해주는 든든한 조장입니다. 타인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해 줄 때도 있지만, 웃기기도 엄청 웃습니다. 신나면 장소를 불문하고 그 자리에서 춤까지 추고, 사진을 찍을 땐 시시한 포즈는 절대 하지 않는

재미있고 정도 많은 2조의 큰 오빠입니다.

울릉도 남자이자 못 민겠지만 살 찌기 전엔 정우성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는 박진철 사원은 처음에는 엄청 시크하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첫 이미지와는 달리 얘기를 하다보면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여동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챙겨주는 것을 보면, 시크한 척 하지만 따뜻한 감성을 지닌 경상도 남자입니다. 또 가끔은 친오빠처럼 진지한 조언도 해주는 다정다감한 2조의 둘째 오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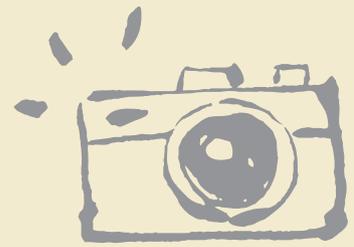
여자친구가 생기면 다 퍼줄 것 같으며 제발 여자친구 좀 생겼으면 하는 손연호 사원은 말 그대로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배려하는 자세가 습관이 된 듯 조별 회식으로 고기를 먹으러 가면 집계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항상 고기가 다 익었다 싶으면 자기 접시에 담기보다는 조원들 접시에 넣어주기 바쁘고,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면 진짜 사주는 2조의 엄마 같은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명 중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는 잘생긴 여캐 강재인 채승원 사원은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서 만능 스포츠 맨입니다. 말하는게 살짝 어눌하고, 엉뚱한 면도 있는 채승원 사원은 제가 수달을 닮았다며 놀려도 웃으면서 받아주는 성격 좋은 착한 오빠입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한 제가 병원이 아닌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어,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적응 할 수 있는데에는 다른 분들의 도움도 컸지만, 저의 오피스 절친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오피스 절친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들과 교감하며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위로하며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게 회사로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벼운게 아닐까요?

행복한 사진관

스마트폰, 컴퓨터 하드 속에 퐁퐁 숨겨놓았던,
자랑하고 싶은 순간들의 사진을 화신인 모두에게 공개하는 자리!
부러움, 질투, 원성 등이 뒤따를 수 있으니 수위조절은 알아서~



▲SD 컨벤션
재경팀 일일호프날 동기들과 웨이터 할 때!



▲영천 초이스 카페에서 선선한 가을날
동기와 따뜻한 커피 한잔~



▲봉동 식당 어묵 나오는 날~
너무 잘 먹는 조정윤 사원 도촬컷!

▶송년회는 뮤지컬을 타고~





연말은 우리팀과 함께!



송년회는 자연산 활어회와 함께!



업무팀 단체사진



여직원 송년회



신나는 불꽃놀이



어쿠스틱 송년회1



어쿠스틱 송년회2

금연을 시작으로



화신 총무팀 최운복 과장

매년 새해가 되면 새해 계획을 짜느라 여념이 없다. 나 또한 그렇다 벌써부터 올해 계획을 짜고 있다. 뭘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작년 12월부터 줄곧 생각해온 금연이 먼저 올해 계획의 첫 스타트다. 작년 연말부터 금연하고 있는 기간 첫 출발이 좋다. 계속 끝까지 가보자.

2014년은 나 자신한테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 먼저 1년 동안 독서를 16권 정도를 했으니 나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래서 올해는 20권 이상 독서를 할 예정이다. 또한 악기를 하나 하고 싶어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다. 악기 배우기를 잘 한 것 같다. 올해도 계속 악기를 꾸준히 해 볼 생각이다.

2015년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 할 예정이다. 하나하나씩 준비해서 생각해 온 자격증을 취득 할 것이다. 회사에 출근을 하면 pc화면에 제일 먼저 보이는 화면이 개인 일정표이다. 오늘 업무적으로 뭘 해야 할지 내일은 뭘 해야 할지 빼곡히 쓰여져 있다. 올해는 나의 개인 일정표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빼곡히 채워 넣을 것이다.

자신만의 작은 목표를 이루는 한해 되길



화신정공 품질관리팀 임동길 사원

'나의 미래 계획'이라는 주제로 원고를 작성하며 2014년 한 해를 되돌아 보는 시간, 또한 다가오는 2015년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누구에게나 그럴겠지만 나에게 2014년은 유난히 시간이 빨리 지나갔던 해이다. 그만큼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여왔기에 보람찬 해라고 표현하고 싶다.

대학교 4학년이 된 나의 2014년 초기 목표는 마지막 학점관리, 어학점수, 기사 자격증 취득, 상반기 인턴경험 이 네가지였다. 하나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도 어려운데 동시에 네가지 목표를 이루려 하니 시간관리도 되지 않고 삶의 여유가 없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기사자격증 취득에 집중하고 나머지 3가지 목표는 잠시 접어두기로 하였다.

자격증 취득에 목표를 두었지만 학점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금씩 공부량을 늘려가기로 했다. 친구들보다 더 일찍 등교를 하고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1학기... 하지만 운 좋게 '화신 인턴'에 합격을 하게 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7,8월 인턴을 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이 백지화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공존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정규직 전환' 그리고 '자격증 취득' 모두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인턴생활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정규직 사원이 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의 결정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었다는 생각이 든다.

신입사원으로서의 2015년 계획은 부서 적응과 업무 배우기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그것들뿐만 아니라 2014년에 못 이뤘던 잠시 접어두었던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두고 싶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작년에 못 이뤘던 바를 이루길 기대하며, 화신 가족 여러분도 각자 자신만의 작은 목표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2015년 새해에도 화신 가족 여러분들 삶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Happy New Year.'

대학시절 못다 이룬 계획



새화신 송영규 주임

이번 사보 겨울호의 테마스토리 주제 '나의 미래 계획'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았다. 나의 미래 계획? 나는 어떤 미래 계획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았다. 이번 주제로 그렇게 몇일을 고민했다. 그러면서 퇴근 후 집에 가서 책상을 꼼꼼히 살펴 봤다. 자격증 관련된 서적이 많이 있었다. 물론 취득한 자격증 서적도 있곤 했다. 그래! 나의 미래 계획은 자격증 취득이었구나. 라는걸 알게 되었다.

대학 시절 선배들이 대부분 취득했던 전공자격증! 군 전역 후 바로 복학을 해서 선배 및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는 전공 자격증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모르겠거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배들한테 물어보면서 공부를 했고, 시험 2일전에는 시험 준비하는 인원이 한 자리에 모여 밤샘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우리는 시험을 보러 시험장으로 이동 하여 다시 한번 서적을 보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시험을 보았다. 시험은 6명씩 볼 수가 있었고, 시간은 대략 2시간 정도가 걸린듯 하다. 선배들과 친구들 6명이 먼저 보고, 나머지 인원이 보았다.

한시간이 지날 무렵 선배 2명과 친구가 시험을 끝내고 나와서 잘 봤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노력 보고, 타이핑 안되는 곳이 있으니 그 자리만 피해서 앉으라고 조언을 해 주었다. 그 조언을 듣고 나머지 인원이 들어가서 앉고 싶은 곳에 앉았는데 감독관 지시에 따라 자리 배정을 다시 하여 앉아 시험을 보고 나왔다.

시험을 보고 1주~2주가 지날 무렵 시험 성적이 메일로 왔다. 시험 성적을 확인 후, 같이 본 인원들한테 물어보니까 합격한 인원도 있고, 불합격한 인원도 있었다. 불합격한 인원한테 물어보니까 PC문제가 가장 많이 있었다. 타이핑이 안되는 곳에서 시험을 본 인원이 4명이 있었다. 물론 나도 타이핑이 안되는 곳에서 시험을 봐서 불합격을 했다. 그렇게 전공 자격증 취득을 못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지금까지 사회 생활을 하고 있다.

대학 시절 취득하지 못한 자격증에 대해 이제 다시 도전 해보려고 한다.



식신로드부럽지 않은나의먹방로드 전주한옥마을

화신정공 업무팀 태호선 주임



연애 하던 시절, 여행이라기 보다 이곳 저곳 놀러를 많이 다녔었습니다. 강원도 평창 송어축제, 서울 구경, 서해 태안의 해변, 남해 스파르타 여행 등... 모든 연인들의 필수 코스는 어지간하면 기본 것 같아요. 하지만 연애 3년 차.. 여행가는 것도 슬슬 귀찮아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던 차나 2014년 여름휴가! 각자의 집에서 휴식을 보내기로 했던 저희는 도저히 황금 휴가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정한 여행지는 바로 전라북도 전주의 '전주한옥마을'이었습니다. 전주의 맛집을 찾아 다니기에는 차타고 이동시간이 꽤 있었기에 한옥마을에서 모든 걸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여행의 목적은 단 하나. "배 터지게 먹고 오자"는 컨셉으로 정하고 계획 없이 무작정 일단 출발! 여행의 묘미 중 하나가 휴게소에 들러 핫바를 먹는 것이지요. 룰루랄라 떠나 전주까지 약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만 주어진 황금 휴가가 아니였겠죠! 한옥마을까지, 거기다 주차하는데 까지 가는데만도 어마무시한 시간을 날렸던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전주한옥마을'. 주차하자마자 목적 달성을 위해 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어진 1박2일의 시간 동안 어떤 음식들을,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 생각하니 궁금하고 설레었습니다. 일단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폭풍 검색을 하여 저희만의 먹방로드 계획을 세우며 한옥마을을 탐방하였어요.

퐁년제과의 초코파이, 베테랑 칼국수와 만두, 오미자주스, 츄즈미의 츄리스와 수많은 아이스크림, 길거리에 파는 문(어)꼬치, 닭꼬치, 떡갈비, 전주비빔밥 등 배가 꺼질 여유도 없이 먹고 걷고 먹고 걷고를 반복한 것 같아요 배달 날까봐 걱정했지만 워낙 튼튼한 위장이라 잘 버텨주더군요. 관광지라고 가본 곳은 오직 '전동성당' 뿐이에요. 전동성당은 우리나라에서도 손에 꼽히는 아름다운 성당 중 하나라고 합니다. 더 뜻 깊은 것은 호남에 지어진 첫번째 성당이자 천번째 순교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한옥마을에 가신다면 당연히 들려 사진 한방 '찰칵' 찍어야 하는 명소입니다. 더운 날씨에 땀은 물흐르는 흐르고 사람들도 바글바글 거렸지만 오랜만에 떠난 전주로의 여행은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전주한옥마을을 여행가실 때 드리는 팁이 있다면, 먼저 봄, 가을 같은 날씨에 가는 것을 추천해드리며 저같은 먹순이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음식들을 접해보는게 목적이었으니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드셔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처음부터 맛있다고 우걱우걱 먹으면 나중에는 배가 불러서 먹지를 못해요. 여행 중에는 일상에서 하지 못한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처음 접해보는 것들에 함께 즐거워 했던 장면들이 스쳐갑니다.

일상에 지쳐 먼길 떠나는 부담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텐데요. 한번만 용기를 가진다면 여러가지 여행의 맛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등짐을 메고 산에 오르는 이유

새화신 업무팀 배명성 주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허겁지겁 출근 준비를 한다.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게 하루를 보내고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온다.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잡자리에 들기 일쑤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업무에 집중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작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주말에 산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에서 나오는 여유가 아닐까 한다.

처음부터 산이 좋았던 건 아니다. 서른이 갓 넘어 산이 좋아졌다. 아니 산이 좋기보다는 야영이 좋아 산을 올랐다. 산 중턱 즈음 왔을 때는 보이지 않는 정상과 돌아가고자 하는 내면의 투쟁으로 인하여 심 박수는 올라가고, 급격하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어느덧 아드레날린 분비가 최고에 달했을 때, 목적지 정상에 도착한다. 정상에 올라서서 눈부신 겨울의 새하얀 향연을 내려다보면 그 쾌감과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걷기 때문에 신체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나온 일상을 회상하며 생활의 사소한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유발되어 매주 중독처럼 산을 오르는 것 같다. 또한 정상에서의 하룻밤은 그 어떤 풀빌라에서도 흉내 낼 수 없는 도시의 야경과 은은한 별빛 조명 아래

에서, 칼바람 소리의 오케스트라 향연에 취해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잠을 이룰 수 있다. 컴퓨터 화면과 휴대폰 화면 등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것만 보고 사는 일상과 대비하여, 추억 수만 광년 떨어진 별들이 머리 위에 수 없이 떠 있는 멋진 광경을 보게 되면 탄식이 절로 나오곤 한다. 물론 정상에서도 날씨가 허락해야만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무거운 등짐을 메고 산을 오르는 이유이다. 산속의 야영을 추천합니다!





문화가 있는 제품연구팀의 연극관람기!

매서운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추운 겨울! 우리 제품연구팀은 몸과 마음을 녹이기 위해 연극을 관람하게 되었다. 우리 제품연구팀이 선정한 연극은 뉴 보잉보잉! 공연은 잘생긴 남자주인공이 3명의 여자와 동시에 연애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룬 연극이다.

3명의 여자친구는 모두 스텐디스로 비행 스케줄에 맞춰 주인공 남자와 데이트를 하게 된다. 하지만 도중에 비행기 스케줄이 하나씩 꼬이게 되면서 남자 주인공 집에서 마주칠 듯 조마조마하게 상황극을 연출하여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었다. 특히나 남자 주인공 친구와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의 열정적인 연기에 배꼽이 남아나지 않았다.

연극은 연인과 가족끼리 보는 것인 줄 알았던 내게 팀원들과 즐기며 본 이번 공연은 정말 색다르게 느껴졌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팀 단합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 회사 업무시간에 하는 의사소통도 중요하지만 계급의 상하관계를 벗어나 즐기며 의사소통을 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공연에서 가정부 역할을 맡은 배우처럼, 남자주인공 친구처럼 담백한 입담으로 팀원분들에게 웃음을 줄 수는 없지만, 나름의 역할을 가지고서 맡은바 최선을 다하면 분명 공연에서 보였던 시너지 효과를 회사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다가온 2015년에도 팀 행사에서 술자리보다는 공연을 즐기는 선진 문화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과 지나간 2014년에 팀원 분들 중에 경조사도 많았는데 올해에는 경사만 가득한 우리 제품연구팀이 되길 바라본다. 올해도 제품연구팀 화이팅!



끝으로 키코고 잘생긴 최낙윤 주임님 TBC방송 인터뷰 축하 드립니다. 화면을 보면서 “보잉보잉 화이팅”하실 때 많은 웃음을 주었습니다. 회사 홍보하러 친히 목걸이(테그)까지 달고 인터뷰를 하시는 최낙윤 주임님은 진정한 화신입니다.



우리가 글로벌이다! 생산기술실 송년회

- 일시 : 2014.12.12~13
- 장소 : 영천시 운주산 자연휴양림
- 참석자 : 사시기술팀, 차체기술팀, 인도화신 연수생들

2014년도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12월의 어느 날. 우리는 생산기술 송년회를 떠나 보았다. 해외 출장이 잦은 우리 생산기술팀의 특성상 두 팀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시기가 잘 맞아 장기파견자와 휴직자를 제외하고 모든 팀원이 참석한 자리였다. 또한 인도화신 연수생들도 함께 하였다. 한겨울의 추위도 우리 생기의 열정을 꺾을 수 없었고 그렇게 우리의 송년회는 시작되었다. 우선 겨울별미인 과메기와 석화, 회,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고기로 우리의 굶주린 배를 풍만하게 만들어 보았다.

모닥불 앞에서 웅기종기 모여서 한 해를 돌아보며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자리였다. 야외 식사 후 실내로 들어와 김영돌 이사님의 한해 마무리 건배사와 함께 2014년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보았다. 이번 자리에서는 생산기술팀인 사시기술팀,

차체기술팀, 그리고 인도화신 연수생들과 함께 업무를 공유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게임과 선물을 준비하였지만 서로 이야기에 집중하느라 게임은 진행하지 못하였다. 대신 특별히 인도화신 연수생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한국의 술 문화를 알려주었다. 다행히 인도화신 연수생들이 우리의 술 문화를 잘 받아주어서 더욱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었다. 인도화신 연수생들과 어느덧 시간이 흘러 헤어질 시간이 되었지만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도 많이 들었고 정확히 의사소통은 안되지만 텔레파시 같은 무언가가 통할 만큼 친해졌는데 막상 헤어지려니 아쉬움이 컸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서로 다음을 기약하기로 하였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즐거움이 많은 새해를 맞이하며 15년에도 모두 건강한 생산기술팀이 되었으면 한다.

Let'it go~ Let'it go~

겨울왕국으로 떠나는 눈꽃산행

칼날 같은 바람과 코끝 찡한 추위를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른 이들에게만 허락하는 겨울 산! 하얀 눈으로 덮인 겨울 산의 고요한 절경과 눈꽃이 내려앉은 상고대의 모습은 절로 자연의 위대함과 감동을 준다. 그래서 산을 좋아하는 이들은 '산은 겨울 산'이라는 찬사를 퍼붓고, 겨울산행에 설레나 보다. 겨울왕국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눈꽃을 가슴에 담아 올 수 있는 최고의 코스를 소개한다.

소백산 1439m

'천상의 화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소백산은 아름다운 골짜기와 완만한 산등성, 울창한 숲으로 그림 같은 설경을 연출한다. 순백의 상고대는 습도와 기온차이로 생기는데 전국의 명산 중에 소백산이 가장 아름답다고 손꼽힌다.

산행코스는 죽령휴게소에서 출발해 연화봉과 비로봉을 거쳐 천동으로 내려오는 16.5km 구간과 천동·새밭에서 출발해 비로봉을 거쳐 반대편으로 내려오는 11km 구간으로 나뉜다.

천동~새밭 코스는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산행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 초보자들에게 추천된다.

설악산 1708m

이름에 '눈 설(雪)'이 괜히 붙은 게 아니다. 설악의 매력은 겨울이 되어야 가장 잘 드러난다. 기암 괴석과 고목들이 피워내는 눈꽃과 바위산의 절경에 '와~'하는 감탄사가 절로 난다. 귀차니즘 환자(?)나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등산객들에게 설악이 좋은 점은 바로 케이블카! 편안하게 케이블카에 기대 공룡능선과 외설악의 하얀 절경을 감상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인기 코스로는 오색이나 한계령에서 대청봉을 올랐다가 하산하는 코스, 공룡능선 코스, 서북능선 코스 등을 꼽을 수 있다. 대청봉을 갈 때는 보통 오색에서 대청봉에 올랐다가 중청대피소를 거쳐 서북능선 쪽으로 가다가 한계령으로 하산하거나 역순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다. 시간은 8시간 정도. 설악의 멋을 제대로 느끼려면 공룡능선을 타야 한다. 공룡능선은 설악동에서 금강굴 마당령을 거쳐 가거나 반대로 오색에서 올라 대청봉~희운각을 거쳐 갈 수 있다.

태백산 1567m

눈꽃산행과 눈 축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태백산은 겨울에만 운영하는 눈꽃 열차를 탈 수 있어 더욱 인기 있는 여행지로 꼽힌다. 태백산은 이름이나 높이에 비해 산세가 전체적으로 완만해 겨울산행에 적합하다.

산이 크기 때문에 등산로가 다양한데 겨울철에는 보통 유일사 입구에서 시작해 유일사~천제단~장군봉~망경사를 거쳐 당골광장으로 하산하는 코스가 많이 이용된다.

시간은 4시간 30분 정도. 특히 유일사를 지나면서부터 연이어 나타나는 주목들은 다른 산에서 찾아보기 힘든 멋진 모습을 자랑한다.

덕유산 1614m

덕유산은 전북과 경남의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겨울에는 서해를 건너오는 습한 바람이 머물러 적설량이 많고, 눈꽃도 더욱 화사하게 핀다. 이 때문에 굳이 스키를 타지 않더라도 곤돌라를 타고 눈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

대표적인 등산로는 덕유산에서 남덕유산을 잇는 중주코스지만 14시간이나 걸리는 만큼 겨울에는 덕유산 코스와 남덕유산 코스가 따로따로 이용된다.

주로 많이 찾는 코스는 삼공탐방지원센터에서 백련사를 거쳐 향적봉에 이르는 8.5km로 왕복 4시간30분~5시간 정도 잡으면 된다.

등산이나 하산할 때 곤돌라를 탈 경우 3시간~3시간 30분 정도로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다만 곤돌라 이용은 항상 붐비기 때문에 꼭 곤돌라를 타려면 남들보다 서둘러 가는 게 좋다.

겨울산행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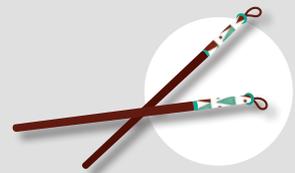
가능성 속옷은 반드시 준비하라. 땀이 식은 후 배춧이 되지 않으면 체온 저하에 가장 치명적이다.



두터운 털모자 보다는 목과 귀를 덮을 수 있는 마스크와 계절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가벼운 모자가 훨씬 낫다**. 머리가 추워서 힘들지는 않다. 너무 두터운 모자는 땀이 배이면 더 무거워지고 열이 내려가면서 체온을 떨어뜨린다.



손에 너무 꽉 끼지 않는 여유 있는 크기의 **장갑(스키용)**을 고르는 게 좋다. 꽉 끼는 장갑은 두 겹을 끼어도 여전히 시리고 춥다. 여유 공간이 열 방출과 외부 차가운 공기의 유입을 차단시켜 준다.



눈과 얼음길에는 반드시 **스틱**을 사용하여 다리근력의 체력소모를 줄여 주는 게 좋다. 눈길의 산행은 평소보다 1.5~2배의 체력소모를 필요로 한다.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항상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일반 물병은 얼어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안전과 멋

둘 다 잡는 겨울산행 스타일링

춥다고 이불속만 파고들고 계시진 않나요? 애인보다 따뜻한 전기장판과 과감히 작별인사를 고하고 은빛설경이 기다리는 겨울 산으로 떠나봅시다.
'근데 뭐 입고 가지?'가 고민이시죠? 걱정 마세요.
안전과 멋!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겨울산행 스타일링 팁을 알려드립니다.



Style 01 보온을 위한 레이어드

겨울 산행은 보온이 필수 두꺼운 옷 한두 개 입는 것보다 얇은 옷을 서너벌 겹쳐 입을 때가 체온에서 전달되는 따뜻한 공기층이 더 많이 생겨 보온에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내의 위에 기모 티셔츠, 플리스(양털같이 부드러운 식물) 재킷을 입고 다운 재킷을 입는다. 그 위에 방수, 방풍, 투습성이 있는 기능성 소재의 재킷을 입으면 체온 유지에 더욱 좋다.

Style 02 컬러는 tone on tone

톤 온 톤은 동일 계열의 색상으로 톤이 다른 배색을 뜻하는 말인데 이를테면 캐멀이나 브라운 색상의 이너웨어를 입고 카키색 외투를 입는 식이다. 짙은 핑크색 이너웨어에 붉은색 외투를 입는 것도 마찬가지. 좀 더 멋스러운 스타일을 선보이고 싶다면 화려한 컬러로 과감히 시도해 볼 것

모자

칼날 같은 겨울바람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곳은 머리와 손, 귀다. 모자는 머리를 보호해 혈관 수축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뇌에 산소 공급을 돕고 체온 유지를 도와준다. 요즘에는 모자에 마스크가 달린 것 등 기능을 향상시킨 제품이 다양한데 필요 이상으로 보온을 할 경우 땀이 많이 나고 건조가 어려우므로 본인의 등산 타입에 맞는 것으로 준비한다.

배낭

눈이 쌓여 얼어 있는 산길을 오르다 보면 뒤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등을 감싸 부피감 있는 배낭을 착용하면 머리가 바닥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 미연에 뇌진탕을 방지 할 수 있다. 배낭을 고를 때도 등판 부분에 메쉬망이 사용돼 통기성이 우수한 제품이 좋으며, 3M 패치로 야간 반사기능이 적용된 제품은 야간 산행 시에 도움이 된다.

등산 스틱

겨울 산의 얼음은 오랫동안 결빙돼 단단한데다 쉽게 녹지도 않아 산행하는 내내 조심해야 한다. 등산 스틱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미끄러운 등산로를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길이 조절시 손으로 풀고 잠그는 기존의 수동식 등산 스틱과 달리, 버튼타입의 자동스틱도 출시되어 편리하다

아이젠

눈이 쌓이거나 얼어있다면 이동할 때 발이나 무릎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때 아이젠을 등산화 밑에 덧신으면 얼음에 미끄러지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에 겨울 산행 시 챙겨야 할 필수 아이템이다. 아이젠은 전, 후면 분리형 피크 제품이 착용감이 편안하며 접지력도 우수하다.

넥워머

넥워머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포함된 부드럽고 매끄러운 촉감에 신축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방온점퍼

눈과 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풍, 방수 기능이 적용되어야 한다. 아우터를 선택할 때는 필파워(다운복원력) 800 이상에 구스다운 충전재가 사용된 제품을 선택하면 보온성과 복원력 걱정 없이 산행에 집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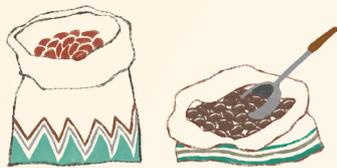
장갑

장갑은 손바닥에 실리콘 처리가 되어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제품이나, 특수 원단을 사용해 장갑을 벗지 않고도 스마트폰 화면 인식이 가능한 제품이 겨울 산행에 적합하다.

이런 것도 알았어? 반적매력 필살기 요모조모 쓸모 있는 메모 '커피편'

에스프레소? 모카? 라떼? 투 샷?

늘 마시는 커피지만 카페 주문대 앞에만 서면 복잡한 주문이 외계어 같아 긴장되는데요!
이럴 때 당황하지~않고, 여유롭게 주문할 수 있는 간단한 커피 상식을 소개합니다.



커피의 베이스가 되는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는 높은 압력으로 빠르게 추출한 커피인데 향이 강하고 카페인도 적어 커피 본연의 맛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 추출하면 작은 샷 잔(30ml)에 커피가 담기는데 한 잔이 원샷이고 두 잔을 투 샷(더블 샷/60ml)이라고 합니다. '샷 추가'라고 하면 투 샷의 에스프레소가 담기는 것입니다.



이름만 알면 쉬워져요

라떼는 '우유'를 뜻하고, 모카는 '초콜'을 의미해요. 커피 이름에 라떼가 들어 있다면 우유가 들어가고, 모카는 초코시럽이 들어갑니다. 시나몬은 '계피가루'를 뜻하고, '프라푸치노'는 얼음이 갈려서 나오는 음료를 말합니다.



한 눈에 보는 커피메뉴

커피 잔에 에스프레소(30ml)만 담긴 것을 에스프레소라고 하고, 에스프레소 위에 휘핑크림을 올리면 에스프레소 콘파냐라고 합니다. 자료 그림처럼 한 잔의 커피 안에 무엇이 담기는가에 따라 커피의 메뉴가 달라지는 것이죠.



Espresso
에스프레소



Espresso Con Panna
에스프레소 콘파냐



Espresso Macchiato
에스프레소 마끼아또



Americano
아메리카노



Vienna
비엔나



Caffe Latte
카페라떼



Hazlnut Latte
헤즐넛라떼



Vanilla Latte
바닐라라떼



Caramel Latte
카라멜라떼



Caramel Macchiato
카라멜 마끼아또



Cappuccino
카푸치노



Caffe Mocha
카페모카



White Chocolate Mocha
화이트 초콜릿 모카



Caramel Mocha
카라멜코모카



Mochaccino
모카치노

● 에스프레소 ● 휘핑크림 ● 데운우유 ● 우유거품 ● 물 ● 헤즐넛시럽 ● 바닐라시럽 ● 카라멜시럽 ● 초코시럽 ● 화이트 초코시럽

편집자가 선정한 BEST Cut & Writing

이달의 Best Cut Writing 으로 선정되신 직원분들께 축하를 드리며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Best cut!



함께하기엔 먼 당신
겨울 산에서의 야영이라니, 멋진 풍경과 뜨거운 도전의 기운이 느껴지는 사진을 보고 있자니 이번 주말에 꼭 가야할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은 '나도 해보아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보는 것만으로도 무릎이 시리고 오한이 드는 것은 왜일까.



무엇이 그대를 슬프게 했는가
베스트 컷을 하다보면 이런 유니크한 사진이 간혹 나온다. 뭔가 울기 직전의 아귀 같기도 하고, 몰래 엿보는 순간의 표정 같기도.. 아무튼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표정의 매력이란. 아마 지워달라 요청하겠지만 어찌랴, 이미 인쇄나온 것을.

Best writing!

한명 한명의 노력이 우리팀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혹시나 수상소감을 말하게 될까봐 한 문장 준비했었다.
"I would like to attribute this glory to all people involved in making of this absolutely fantastic play 'Ask yourself'.
화신정공 사랑합니다♥" (화신정공 업무팀 조아영)

사우동정

결혼

생산 2부	박학철 사원 장남결혼 (11/9)	시험해석팀	강동훈 주임 결혼 (12/6)
자재관리팀	이기백 사원 결혼 (11/30)	선행품질팀	최동영 과장 결혼 (12/27)
구매팀	김대원 주임 / 정공업무팀 태효선 주임 결혼 (11/29)	화신정공 생산 2부	이충재 사원 결혼 (12/21)
구매팀	이가은 대리 결혼 (12/7)	설계 1팀	이지현 대리 결혼 (12/20)
품질관리팀	권성현 주임 결혼 (12/6)	생산 1부	곽동욱 사원 결혼 (1/11)
생산 2부	김현식 조장 장녀결혼 (11/30)	생산 1부	이윤환 사원 장남결혼 (1/18)
설계 1팀	윤경남 대리 결혼 (11/30)	화신정공 생산 1부	홍해진 사원 결혼 (1/25)

탄생

구매팀	김희겸 주임 득남 (10/21)	시험해석팀	노민구 대리 득녀 (12/18)
생관자재팀	김준성 주임 득남 (10/21)	생산 2부	장용식 사원 득남 (12/26)
기술영업 1팀	정승원 주임 득녀 (11/9)	생산 1부	이진혁 대리 득남 (12/28)
구매팀	김진환 대리 득녀 (12/3)	생산 2부	김판수 사원 득녀 (1/1)
새화신 생산팀	장기철 사원 득남 (12/8)	화신정공 연구팀	최현열 과장 득녀 (1/7)
기술영업 2팀	박재우 주임 득남 (12/9)	제품시작팀	정호열 과장 득녀 (1/7)
생산 2부	손성진 사원 득남 (12/12)	원가기획팀	박경식 대리 득녀 (1/10)
생산 2부	김규환 사원 득남 (12/14)	새화신 생산팀	김기완 사원 득녀 (1/11)
제품연구팀	김정현 과장 득남 (12/17)		

작심 3일에서 작심 365일로!

Save Message

Date

새 다이어리를 받으면 관스레 마음이 설렙니다.

뽀뽀한 종이를 휘리릭 넘겨보며

새 책의 향기도 맡아보고, 아직 쓰이지 않은 일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궁금해합니다.

잊지 않아야 할 대소사와 가족들의 생일을 써놓고,

휴일은 몇 일이나 되는지, 연휴는 언제지,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울지 미리 즐겨워하며

첫 장에 새해 계획을 정성껏 써줍니다.

이제까지는 작심 3일로 끝나버렸지만

작심 3일을 하고 또 하면

365일이 되지 않을까요?

새해, 첫 시작 모두 파이팅!입니다.

하늘타리에 실을 다양하고 재밌는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보내 코너와 관련된 글은 물론 화신의 여러가지 소식들, 재밌는 이야기, 알고 싶은 것 등 원고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2015 경영방침

원가 경쟁력 혁신

글로벌 일류 품질브랜드 구축

가치 창출형 업무구조 확립

성장 지향형 사업구조 확보

